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Arts Center
July+August 7+8
2012 vol.31



CONTENTS



- 4 **ASAC ESSAY**
포토에세이
- 6 **ASAC PEOPLE**
아티스트 하림
동화작가 고정욱
- 14 **문화진단**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예술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
- 18 **ASAC STAGE**
여르미오페스티벌
아침음악살롱3
- 쇼팽, 베토벤, 브람스의 <사랑이야기>
2012오픈스페이스프로젝트
- 젊은 안무가들의 힘찬 날개짓
뮤지컬 <설록홈즈>
무대야놀자
- 28 **ASAC ACADEMY**
하반기 정규강좌
- 32 **ASAC EXHIBITION**
NEW스포츠과학놀이체험전
- 34 **대관공연**
7~8주요 대관공연



14

36

CULTURE TREND

테마가 있는 미술 _ 그림 속 신화이야기
연극, 그 중독적 매력에 빠져들다!
즐거운 클래식, 시대를 읽다

48

문화家탐방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학교! 예술교육을 묻다

56

동아리 탐방

은빛실버
- 아코디언동아리

58

전당뉴스

60

시립예술단소식 상주단체소식

안산시립국악단



18



36

7 JULY 2012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기획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어린이캣츠 11:00 / 14:00	■ 무대점검		■ 무대아놀자 10:30	■ 무대아놀자 10:30 ■ 향음양상블 정기연주회 19:30		7 ■ 2012부활라이브 투어콘서트 15:00 / 19:00 ■ 햄릿,대리운전중 16:00 / 19:00
8 ■ 햄릿,대리운전중 15:00 / 18:00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14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15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21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22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점검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아침음악살롱 3 11:00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무대아놀자 10:30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28 ■ 에듀클래식 전국 학생음악콩쿠르 10:00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29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8 AUGUST 2012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기획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여름이오	여름이오
5	6	7	8	9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점검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p>하반기 예술 아카데미개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은영의 교과서음악회 13:00 / 16: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12	13	14	15	16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점검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More Than Just A Man> 15:3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11:00/14:00/16:00 코리야를 박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10: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뮤지컬 <설록홀츠> 13:00/19:00
19	20	21	22	23	2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11:00 / 14: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뮤지컬 <설록홀츠> 14: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점검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고 재밌는 클래식 11:00 / 14: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토스 11:00 / 14: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길동 슈퍼 매직쇼 14:00 / 16:00 희담공연예술단 15:00 / 19:00 후토스 11:00/14:00/16: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토스 11:00 / 14: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점검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야놀자 10:3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야놀자 10:3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야놀자 10:3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두번째프로포즈' 19:00 NEW스포츠 과학놀이체험전 	

Photo Essay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 한 그루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열매
자신의 가지와 줄기
그리고 남은 밑동이

조그만 나무 공방에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이 보입니다.

저 하나 하나의 나무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특수교육 목공과 조소-





물속 아름다운 구슬,
자유를 노래하는 가수 아니..

아티스트 하림(河琳)을 만나다.

흙먼지가 아지랑이 사이를 타고 올라오는 6월의 시작, 금천구의 옛 군부대 자리는 이제 예술가들의 안식처인 아트캠프로 단장되어 있었다.

황량한 공터 끝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안에 渡河(도하)의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渡河(도하) '강을 건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공간은 시인 김경주와 가수 하림이 다양한 작업을 함께하는 아지트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작업실을 가로질러 나지막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캠프장을 연상케 하는 미니 텐트가 있는 도하의 소소한 정원에서 아티스트 하림과 마주했다.

INTERVIEW

요즘 정말 많이 바쁜 것 같다. 오랜만에 방송활동도 하고, 또 대학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니 말이다. 첫 질문치곤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다. 왜 이름을 하림으로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본명은 최현우이다. 그리고 '하림'이란 이름은 데뷔전부터 끄적이며 만들어보았던 이름이고 대부분 닭고기 회사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참고로 내가 데뷔할 때 당시 그 회사는 선전을 안 했었다.(웃음) 나 역시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었다.

'하림'은 물'河'에 옥'琳'을 말한다. 그대로 직역하면 물속 보석(?)이 되고 또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건 '강(河)과 수풀(林) 사이의 왕(王)' 뭐 이런 숨은 뜻도 있다.(웃음)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어떤 것들'에 대한 나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의미의 이름이라고나 할까?

참, 그 당시 <여명의 눈동자>에 '장하림'이라는 인물도 있었구나!



이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두 번의 공연을 하게 된다.

9월에는 음악극 <천변살롱> 그리고 11월에는 브런치 콘서트 <집시&피쉬 오케스트라>. 직접 음악감독으로 공연하는 <천변살롱>에 대해 먼저 듣고 싶다.

어떤 공연인가?

간단하게 말해 '음악극'이다. 이 장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주크박스 뮤지컬보다 음악자체가 더 메인이 되는 드라마 콘서트.

<천변살롱>은 만요로 엮은 음악극이다. '만요'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요는 1920~30년대 그러니까 개화기 때 불리던 근대가요이다.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월드뮤직도 근대가요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음악들은 불안했던 사회상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천년살롱〉에 나오는 음악들은 지금은 잊혀진 것들이 많지만, 듣는 순간 “아!”하는 감탄사가 함께 나올 것이다.

콘서트에 가까운 공연이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더 재미나지 않겠나?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

‘한참 잘나가던 때’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한동안 뜸하더니 대중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팬들은 아직도 〈출국〉의 하림을 잊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말이다. 대중가요로부터 이탈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대중가요로부터의 이탈이라... (생각에 잠긴다) 웬지 내가 대중가요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물음이라 조금 어색하다. 난 아직도 대중가수로써 활동하고 있고 많은 가수의 작업을 돕고 있다.

물론 내가 너무 짧게 활동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당시 내가 활동할 때 특색 있는 보이스와 뛰어난 음악성을 지닌 가수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내

입장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물론 내가 만든 음악, 내 색깔은 담은 목소리였지만, 나는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나 자신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 그 신념을 지키고 있는지 모두 내 창작이라고 생각했던 곡들이 정말 순수한지 이런 예술적 고민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다. 아마도 그때가 나 자신에 대한 재정립과 신념을 다시 쌓아야 할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대중가요는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장르가 아닌 것 같다. 음악을 일찍 시작했고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내가 음악 작업실을 없앤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이제 건반 하나 기타 하나만 매면 모든 음들의 조합이 충분하게 연상이 된다. 대중가요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추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월드뮤직에 대한 관심은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워낙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집 음반을 내고 음악 세계에 대한 고민도가 더욱 깊어졌고, 본격적으로 월드뮤직을 공부해 보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엄격히 말해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와 철저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 지



금 대학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듣는 학생들도 흥미로워 하지만, 이것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나 역시 경이롭다.

아코디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대한민국 가수 중 가장 많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계절마다 다르다. 요즘은 중동 악기에 심취해 있다. '우드'라는 아랍 악기인데 중동 기타라고 보면 된다.

한국이란 비슷한 음계(순정음률)를 가지고 있다. 음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아랍이다. 그만큼 음악이나 악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다.

11월 공연인 <집시&피쉬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직접 결성한 그룹인데 어떤 색깔의 가지고 있나?

원래 집시 음악은 카페에 음악가들이 모여서 그냥 술 마시며 연주하다 만들어진 음악이다. <집시&피쉬 오케스트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공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모인 아티스트들이 워낙 실력과 들이고 우리만 즐기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공연이 되니,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할 것도 없었다.

물론 콘셉트를 강화하기는 했다. 1930년대 집시 음악 그리고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순으로 내려오면서 음악 여행을

떠나는 것이 <집시&피쉬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음악 세계이다. 연주하는 우리도 너무 즐겁지만, 보는 관객들의 반응이 매번 그 이상이라 나 역시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웃음)

<신치림> 활동도 한다. 오랜만에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는데 3명의 음악적 성향이 어떤지 궁금하다.

음악적 성향 비슷하다. 내추럴, 어쿠스틱 등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한다. 이번 음반 역시 시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곡들을 만들었다. 작가주의적 성향이 가득하긴 하지만 어차피 요즘은 음반시장이 붕괴되어 그걸 신경 쓰고 곡을 만드는게 더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는 진실한 음악을 좋아하는 마니아 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앞으로 어떤 분야까지 진출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쇼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제대로 된 음악극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콘서트보다 더 재미있고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무대. 화려함을 강조하는 게 아닌 이야기자기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만드는 것이 남아 있는 숙제이다. 당장 당면한 목표는 이제 슬슬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집시의 테이블> 공연의 활성화이다. 많은 사람에게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할 의무감이 아주 조금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 손유주(공연기획부)





인세, 저작권 기부로
재능기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가방들어주는 아이' 작가 - 고정옥



‘가방 들어 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 주옥같은 동화로 폭넓은 독자층에게 사랑받는 고정욱 작가. 요즘 그의 행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문단 데뷔 이래, 왕성한 창작력 등으로 시선을 끈 그가 왜 다시 관심을 받는 걸까?

이유는 재능기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나누미’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작가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몇 번의 조정 후에 정해진 약속 장소는 신도림역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실. 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회의 전에 짧은 시간을 뱐다. 손수 운전하고 온 작가는 사진보다 더 유쾌하고 활동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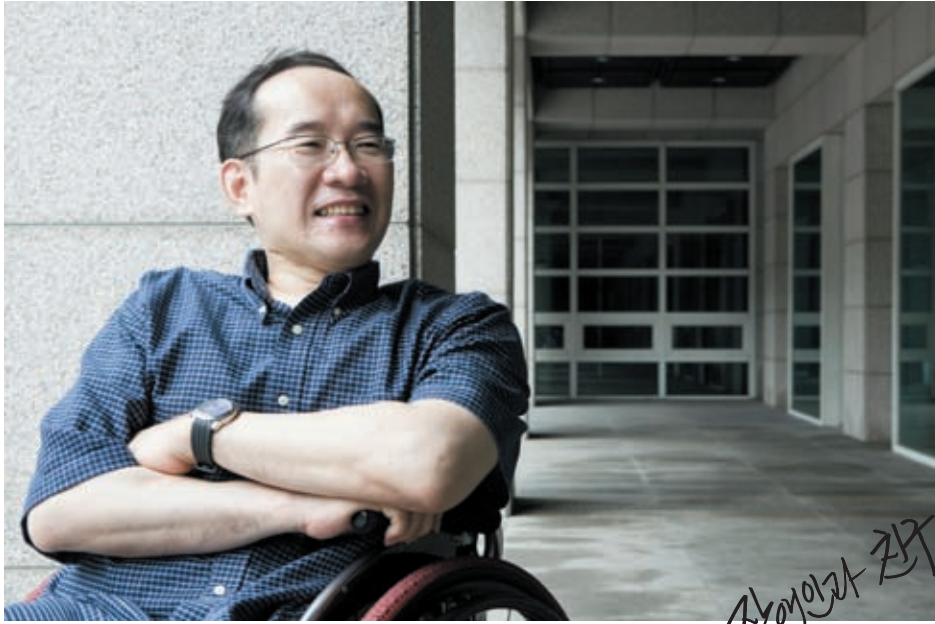
지속적인 기부 모델을 제시하다

2010년 작가는 선진국형 재활시스템 구축과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푸르메재단의 뜻에 동참하고자 그해 발간한 ‘할아버지를 살린 강아지 삐삐’의 인세를 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인세의 전액 기부는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 기부가 아니라 책이 판매되는 한 무한정 기부를 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부 형태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형태의 기부는 작가가 전부터 꾸준히 실행해 온 것 중의 하나였다. 작가가 저작권이나 인세를 기부하게 된 것은 오래전 부터였다. 10년 전, 평소 안면 있던 복지관 관장으로부터 당시 초등생이던

‘여섯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야기를 들은 작가는 그녀를 소재로 한 동화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장애인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피아니스트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일해 온 작가가 놓칠 수 없는 소재였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널리 알고 싶었던 그는 저작권을 통한 나눔을 알게 됐다. ‘피터 팬’의 영국 작가 J. M. 베리가 소아정신과에 저작권의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는 걸 알고 그는 무릎을 쳤다. 바로 이거다.

“여섯 손가락의 어린 학생이 열 손가락을 가진 사람도 어렵다는 곡을 능숙하게 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그녀의 연주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 궁리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소재 제공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다 책의 판매 이익금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기로 한 출판사에 제의를 했죠. 출판사도 흔쾌히 기부에 동의를 하고, 책 속 이미지를 그린 작가도 적극 참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권당 일정한 인세를 주게 된 것이죠. 소재 제공자는 이를 통해 책을 ‘자기 책’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그 후,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이 케이스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장애인과 친구 되세요
곽정웅



나눔으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다

이후로 작가는 책의 저작권료나 인세를 통한 기부를 이어갔다. 2004년에는 당시 범국민 책 읽기 권장 프로그램에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선정되면서 두 달 동안 판매된 인세 전액을 책 읽는 사회 운동본부에 기부했다. 이때 기부한 3억 원의 기금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사용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큰 손' 기부의 즐거움을 느꼈다.

시작은 작았으나 큰 파장을 불러온 그의 기부 형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고비용의 돌잔치 비용을 줄여 아이만을 위한 '단 한 권의 동화책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하게 발전했다.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 한 것은 아닌데, 일련의 기부 행위가 좋은 평가를 받아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상'을 받았다. 그곳에서 기부 연예인으로 유명해진, 유지태, 박상민을 보았다고 즐거워했다.

“이제는 기부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재능을 나눈다는 의미 외에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도 도움을 받아야 할 집단 중 1순위로 꼽히거든요. 그런 장애인이 기부한다는 사실은 500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모든 복지의 전부

문학은 그의 삶에 불현듯 다가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대 입학이 좌절되자 선택하게 된 것이 국문학. 글을 쓰게 된 것도 문학을 공부한 지 한참 뒤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대로 된 동화책'을 써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라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도 잠자리에 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정리한 것이다. 한 시간 만에 완성한 이 작품을 쓰면서 작가는 울고 웃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사인 할 때 꼭 쓰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세요'의 의미가 진하게 녹아 있다. '친구는 모든 복지의 전부'라는 생각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신념이다. 구호와 도움이 아닌 동등한 친구 관계.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한 작가의 삶이 경쾌하지만 목적하다. 아빠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 세라 귀 기울여 듣던 어린 딸은 벌써 대학생이 됐다고 한다. 그 순간 울리는 휴대전화기 울림. 전화 속에서 '아빠 있잖아...'하는 어리광 뽀뽀 담긴 딸의 목소리가 전해져왔다.

작품을 쓰기 위해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켰다는 작가가 창작 외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과 강연회. 강연회는 지역 불문하고 다닌다. 지난해에는 연 160회 이상 강연을 했다고 한다. 안산에도 서너 번은 간 것 같다고 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팔씨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눈다. 여러 번 읽은 흔적이 뚜렷한 책을 속스러운 듯 내미는 독자를 보면서 작가로서의 행복과 책임감을 느낀다.

동료 장애인들은 그의 책을 읽고 난 후엔 '아깝다.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먼저 썼어야 했는데' 하며 아쉬워한다. 그러면 그는 '먼저 쓰는 놈이 장땡'이라고 받아친다고 한다.

그만큼 작품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리라! 작품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작가는 예전에는 장애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불편하지 않다고 말한다. 내 갈 길이 분명해지자 장애는 세상의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고 한다.

나눔의 길, 함께 해요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다. 자신의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 청소년 소설을 내는 것. 구상도 벌써 끝냈다. 가제는 '공짜로 놀아주는 아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 사회봉사를 하는 청소년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평생 자신의 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방위 작가가 되는 것'.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을 읽은 아이들이 커서 그의 청소년 소설을 읽고, 그 이후 책의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60세가 되기 전 자신의 이름을 단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재단의 최종 지향점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 사는 세상. 꿈은 꾸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므로, 그는 벌써 행동을 시작했다. 🌈

남양숙(프리랜서)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예술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





여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하는 6월 초순, 장흥기 차역 앞에서 만국기를 휘날리며 장흥 3색 프로젝트 아카이브전이 열리고 주민 예술잔치가 펼쳐졌다.

지역재생을 꿈꾸며 비롯된 장흥 3색 프로젝트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프로젝트는 이영길 예술감독과 조두호, 김새벽, 최제범, 송보미가 기획 실행한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 (참여작가 : 강민규, 유둘, 서유리, 장형순, 황현성, 요원)이다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아트와 시작과 펼침, 중간 매듭짓기 그리고 주민과의 협동문화활동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기억을 잘 보여주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단체협력형 커뮤니티 아트와 한 전형이다.

최근 안산에서도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손민아가 초지동 호수마을 풍림아파트 123동에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기_선반 프로젝트'를 펼쳤으며,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과 함께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안산에서 실행될 좋은 마을 만들기과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구상과 실현에 도움이 될 듯하여 실행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는 2011년 늦가을부터 2012년 초여름에 걸쳐 실행되었는데 양주시의 제안을 받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예총이 시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공동체)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한 예술활동으로 커뮤니티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접촉(Contact)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흥 오~라이!팀은 주민들이 모인 장흥 3색 프로젝트 사



업 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들이 제안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초기 기획안을 수정 보강하여 나갔다.

주민들은 70~80년대 통기타를 들고 MT(memberhip training)를 가기 위해 장흥 일대를 찾았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시금 추억이 깃든 이곳을 중장년이 되어 가족과 함께 찾아오길 바라고 있었다.

장흥 오~라이!팀은 70~80년대 대학생들이 MT 장소로 가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기차역, 그 가운데 장흥역 앞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명도 '오래된 미래'에서 '장흥 오~라이!'로 바꾸었다.

창조적 협력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형성과 상호이해, 그리고 약속이 중시되는 커뮤니티 아트의 첫 단계인 지역 공동체와의 접촉(Contact) 과정에서 전문예술가 또는 예술 프로젝트팀이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며 협동창작 프로젝트를 추출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현기법을 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흥 오~라이!팀은 기차운행이 멈춘 관계로 오랫동안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었던 장흥역 앞 다방과 전과상, 구멍가게를 커뮤니티 예술공간으로 개조하고 여기를 등지로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활동이 뻗어 나가길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 공간이 조성되기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커뮤니티 아트의 두 번째 단계인 조사(Research) 과정에서는 창작 소스(source)가 될 사람, 장소, 지역이슈에 대한 정보 모으기가 기본인데 공동체의 기호, 상징, 의식, 이야기들의 수집과 결합이 중요하다.

장흥 오~라이!팀은 "장흥으로 오~라이!"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공간재생과 스토리 재생으로 영역을 나누고, 재생의 소스가 되어줄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주민 인터뷰와 추억이 깃든 물품 수집과 장소 탐사에 나섰다. 겨우내 진행된 이 과정을 기록 집적한 탐사 프로그램은

세 가지였는데 장흥역 앞의 하천인 **석현천 생태 탐사**, 주민 인터뷰와 더불어 애장품을 모으는 **'장흥의 얼굴'**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지역정보를 수록한 마을 지도 만들기, **'Neo 김정호 놀이'**가 그것이다.

커뮤니티 아트의 세 번째 단계인 창작 (Action)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새 예술 작품 구상과 실현이 중요한데 보다 많은 주민 또는 탐방객과 만날 수 있는 예술잔치 또는 예술장터 혹은 예술카페 또는 공동체이벤트에서의 공연과 전시, 발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흥오~라이!팀은 건축 리모델링, 벽화, 상징조형물설치, 비디오 작품, 모형제작 등등을 공간재생과 스토리 재생 예술작품으로 내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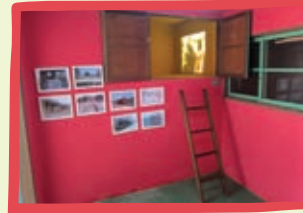
'다시 태어나는 장흥역_ 70~80 장흥역 노스텔지아'를 내걸고 역 앞 다방과 전파상, 구멍가게를 커뮤니티 예술공간으로 재생하였고 이곳을 **도깨비 썰방과 역전 다방 7080** 그리고 **장수 사진관**으로 명명하였다.

도깨비 썰방은 목공방이자 썰방으로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수리하고 싶은 가구(의자, 걸상, 평상 등등)를 가지고 오면 고쳐주는 곳이자 본인이 원하면 리폼 DIY(Do it yourself)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역전 다방 7080은 70~80년대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자 통기타가 있는 예술카페이며 지역 문화사랑방이다. 저렴한 대관도 가능하며 민박 알선도 해준다.

장수 사진관은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옛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곳이자 마을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미지로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장흥추억탕(요리 by 장훈순)은 스토리 재생 작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인터뷰와 이미지 자료 수집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70~80년대 장흥역 주변과 현재의 장흥역 주변을 모형으로 재현하여 도깨비 썰방에 설치하였다. 주민이 직접 참여한 비디오 작업과 영화 작업이 장수 사진관 다락방과 썰방 구석방에서 상영된다.



커뮤니티 아트의 네번째 단계인 피드백 (Feedback) 과정에서는 새 작품의 영향력 확산을 위해 기억, 대화를 촉진시키고 조직화하기를 하는데 지역공동체가 창작물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기획 실행하며, 웹사이트를 제작 구동하기도 한다.

장흥역 앞 커뮤니티 예술공간은 공간운영위원회가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고 역전다방 7080은 마을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옛 추억을 따라 이곳을 찾은 분들을 위해 주말에는 예술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미니콘서트를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깨비 썰방에는 시의 후원을 받아 작가 2명이 상주하며 목공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 아트의 마지막 단계는 교육(Teaching)으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장(場) 또는 공간 만들기 기법을 전수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술 워크숍 및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이다.

양주에서는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송추역 프로젝트 실행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올해 커뮤니티 예술공간 조성과 이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차세대 예술가들과 함께 교육 차원에서 한두군데 더 실행해 보고자 한다. 안산에서도 좋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 공간에서 커뮤니티 아트가 다채롭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양원모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ASAC STAGE
여름이 오레 소더비

여름이오 Festival

2012년 8월 3일(금) ~ 4(토)

2012 JULY & AUGUST



안산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여르미오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2012년 8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이틀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펼쳐질 2012여르미오페스티벌은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여름을 날려보낼 신 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2011년 여르미오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부활'과 'DJ.DOC'에 이어 2012여르미오의 무대 역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로 가득 채운다. 야외에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기는 신 나는 음악으로 올 여름의 무더위를 후련하게 날려줄 것이다. 무더운 일상에서 벗어나 신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안산에서 활동 중인 수준 높은 지역 밴드들의 무대도 사전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한여름을 시원하게 장식할 최고의 무대를 기대해보자.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올 여름 피서는 이곳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가족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 야외 수영장과 수중 축구, 족구장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야외 수영장은 낮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 설치되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썬베드도 설치될 예정이다. 수중 축구, 족구장은 시원한 물속에서 즐기는 운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보낼 수 있게 마련되었으며 우승팀에게는 시원한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초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는 낭만적인 야외 영화관

여르미오의 백미 중의 하나인 야외 영화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올해는 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영화관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더운 햇살을 피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가족들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이틀간 2편씩 상영할 예정이며 여르미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즐기는 야외 영화관은 한여름밤의 달콤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잊지 못할 영화 퍼레이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원한 맥주와 먹을거리가 함께하는 비어가든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갖가지 이벤트와 독특하고 참신한 부대프로그램들이 올 2012여르미오페스티벌을 풍성하게 장식할 것이다.

2012년 여름, 여기로 모여라

도심 속 문화축제, 여르미오페스티벌. 올해는 더욱 풍성하게 마련되어 지친 시민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것이다. 8월 3일, 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여르미오페스티벌을 만끽해보자.

Ensemble Concert

“Love Story of Chopin, Beethoven & Brahms”

김주영, 김지훈, 우정은과 함께 떠나는 앙상블 콘서트

쇼팽, 베토벤, 브람스의 <사랑이>

해설 : 김주영

Frédéric Chopin

쇼팽

Waltzes ‘Petit Chien’ in D^b major, Op. 64 No. 1

강아지 왈츠 (피아노 솔로)

Introduction et polonaise brillante pour piano et violoncello, Op. 3

화려한 폴로네이즈 OP.3 (첼로, 피아노)

Camille Saint-Saëns

생상스

Introduction et rondo capriccioso en la mineur, Op. 28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바이올린, 피아노)

Ludwig van Beethoven

베토벤

Piano Sonata No.17 in D minor, Op. 31-2 “The Tempest”

III. Allegretto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중 3악장 (피아노 솔로)

Trio for violin, cello and piano No.7 in B-flat major

“Archduke”, Op. 97

I. Allegro moderato

‘대공’ 트리오 중 1악장 (트리오)

Johannes Brahms

브람스

Piano Trio No.1 in B major, Op. 8

I. Allegro con moto

피아노 트리오 1번 OP. 8 중 1악장 (트리오)

Hungarian Dance No.1 in G minor

헝가리 무곡 1번

Hungarian Dance No.5 in F[#] minor

헝가리 무곡 5번

이야기



“방학을 맞이한 자녀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7월은 여름방학 기간인 만큼 주부들의 이동이 평소보다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7월의 <아침음악살롱>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클래식 음악 해설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해설과 함께하는 앙상블 콘서트는 아카데미한 배경과 연주실력을 모두 갖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무겁지 않은 곡으로 클래식에 거리감을 느끼는 관객들에게도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다.

‘클래식으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이라는 모토로 기획하여 클래식의 기초부터 깊이 있는 감동까지 쉽고 단순한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로 엮어 갈 것이다.

일시 : 7.26(Thu) 11am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티켓 : 전석 1만5천원

2012오픈스페이스프로젝트

젊은 안무가들의 힘찬 날개짓



공연정보

공연명 : 젊은 안무가들의 힘찬 날개짓

공연일자 : 2012년 8월 24일

공연시간 : 오후3,7시/ 총1일 2회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 5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 50분 (쉬는 시간 없음)

티켓가격 : 전석15,000원

출연진 : 희담공연예술단 (서은정, 정혜란, 최정윤, 최용원, 최유이, 이윤아, 김나연, 주지혜)

할인정보

10% : 안산문화예술의전당회원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 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 65세 이상 경로

※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예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80-481-4000 , 031-481-4039 / 인터파크 1544-1555



공연소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지원사업,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2012년도 3번째 공연은 현대무용 [젊은 안무가들의 힘찬 날개짓]으로 이 시대 젊은 안무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엮어 다양한 소재들과 신선한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 특징이다. 희담공연예술단은 젊은 안무가들의 꿈을 무대로 연결시켜 신진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프로그램

작 품1 : "차라리 몰랐다면..."

안 무 : 정혜란 출연 : 정혜란

작품내용 :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걸... 차라리 몰랐다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작 품2 : "Doubt"

안 무 : 서은정 출연 : 서은정 외3인

작품내용 :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했다. 누군가에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로인해 내가 울고 있다.

작 품3 : "Return"

안 무 : 염세진 출연 : 염세진 외2인

작품내용 : 돈은 돌고 돈다. 유행도 돌고 돈다. 인생도 돌고 돈다. 언젠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도 돌아오겠지...

작 품4 : "리믹스(실용음악 라이브)"

안 무 : 최용원 출연 : 최용원 외4인

작품내용 : 여러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듯 여러 예술장르가 모여 하나의 예술 장르가 완성된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

출연진 소개

희담공연예술단은 순수예술의 장르를 어렵게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예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재해석하고 희담공연단만의 색깔을 찾아 새로운 작품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공연단 연혁

2011. 7. 16 - 17 : "2011 끼리댄스페스티벌" Doubt 안무 및 출연

2011. 7. 29 : 한국선진학교 초청공연

2011. 6. 12 :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 시흥시 대표 출연

2011. 10. 22 : 전국무용제 본선 경기도 대표 출연

2011.11.13 : 지역발전기금작 "꿈을 향한 몸짓" 안무 및 출연

예매문의 : www.ansanart.com · 콜센터 : 080-481-4000 · 인터파크 : 1544-1555



한 여자의 실종, 세 명의 의뢰인
완벽한 거짓은 완벽해
보이는 진실 뒤에 숨어있다!

뮤지컬 <셜록홈즈>

안산공연 안내

공연정보

공연명 : ASAC기획뮤지컬 <셜록홈즈>
공연일자 : 2012년 8월 18일(토) ~ 19일(일)
공연시간 :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2시, 6시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연령 : 10세 이상
소요시간 : 150분

할인정보

ASAC연극가족 30%할인 (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 동반1인 포함
증빙 카드 제시

예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80-481-4000
031-481-4039 / 인터파크 1544-1555

기획사 정보

주 최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작 : HJ culture, 레히 [LEHI]
문의 : www.ansanart.com 콜센터 : 080-481-4000



공연소개

국내 최초 시즌제 뮤지컬을 표방하며 매년 새로운 에피소드로 관객을 찾아 오는 뮤지컬 〈셜록홈즈〉는 아서코난 독일의 원작 〈셜록홈즈〉에서 캐릭터만 가져와 순수 창작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뮤지컬 〈셜록홈즈 : 앤더슨가의 비밀〉은 3년 이상의 제작과정을 거쳐 탄생된 탄탄한 스토리에 사건의 단서를 쫓는 과정을 감각적인 음악으로 풀어내 공연에 박진감과 속도감을 더했다.

뮤지컬 장르로는 낯선 미스터리 추리물에 순수 창작극이라 공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17회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작곡상 총 3관왕을 차지하면서 작품성을 당당히 입증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뜨거운 객석 반응이다. 관

객들의 입소문만으로 초연 3일 만에 전석 매진과 평균 객석 점유율 98%라는 기염을 토해내며 흥행성에서까지 합격점을 받았다.

시시각각 변신하는 무대, 감성을 깨우는 감각적인 음악,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여기에 실력과 배우들의 완숙한 연기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뮤지컬 〈셜록홈즈 : 앤더슨가의 비밀〉은 19세기 런던 최고의 가문 앤더슨 가에서 울려 퍼진 두 방의 총성과 함께 사라진 한 여인을 찾기 위해 거액의 사례금과 함께 셜록 홈즈를 찾은 앤더슨가의 세 남자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님을 감지한 셜록홈즈가 수사에 착수하자 벌어지는 앤더슨가 주위의 연쇄 살인사건의 그 비밀을 셜록홈즈가 밝혀낸다는 내용이다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함께하는 '무대야 놀자'

달에서 쫓겨 떨어진 옥토끼!

으아아아아아~ 쿵! 아이코 엉덩이야 ><

달에서 방아를 찢던 옥토끼가 그만 발을 헛디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옥토끼는 무사히 달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옥토끼를 도와 달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 보아요~

프로그램 순서

- 로비집결 → 무대입장 → 무대장치 및 프로그램 설명
- 무대막 오픈(배우등장) → 페이스페인팅(사진촬영)
- 무대승하강 체험 → 조명을 활용한 연극놀이
- 퇴장(기념품 증정)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무대에서 놀고 싶은 5~7세 어린이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참 가 비 : 1인 3,000원 (인솔교사 및 학부모 무료)
- 문 의 : 031-481-4093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무대야 놀자'는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함께하는 무대체험형 연극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연극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무대 장치 및 극적상황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2012 하반기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예술아카데미(정규강좌) : 2012년 7월 9일 ~ 8월 8일

가을특강 : 2012년 7월 16일 ~ 8월 31일

프로그램 및 접수 문의 : 교육전시부 481- 4091~2 / www.ansanart.com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12년 하반기 예술아카데미가 5개월 과정으로 오는 8월 8일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진행된다. <가야금>, <해금>, <바이올린>, <첼로>의 악기강좌는 기초과정부터 중급과정까지 요일별로 저녁까지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수강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사이즈별로 각 악기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악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레슨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유아음악>, <음악의 첫걸음>, <똑똑한 미술>, <미술로 상상하기>, <동화나라 상상여행>, <뮤지컬 클래스>, <풍물놀이>, <유소년 합창> 등 영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아카데미는 성장연령대를 고려하여 예술적 취향과 요구에 맞춰 잠재된 창의력을 발굴하고 개발함을 목표로 진행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에는 기존의 <드로잉>, <수채화>, <문인화>, <유화>, <현대미술>에 <한국화> 강좌가 신설되었다. 다양한 수목기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무용 기초과정으로 <입춤>과 작품반으로 <살풀이>강좌가, <음치클리닉>의 경우 성별 음악대를 고려하여 여성반과 남성반이 분리되어 운영된다. 3개월의 단기 과정인 가을특강에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와 <누드크로키>, <디지털사진>, <캘리그래피> 등 독특하면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의 명쾌한 해설과 지도로 만나볼 수 있다.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민화>와 <문학> 강좌에는 60세 이상을 증빙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강좌		개강 및 일시	강사	수강료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장소	비고
성인아카데미	드로잉	초급	8,14(화)~ 10:00~12:00/총18회	김용호	160,000원	12명	성인	미술실기실	
	수채화	중급	8,13(월)~ 10:00~12:00/총18회	김대정	170,000원	12명	성인	미술실기실	
	문인화		8,8(수)~ 10:00~12:00/총18회	박문수	170,000원	12명	성인	한국화강의실	
	유화	고급	8,9(목)~ 10:00~12:00/총18회	공기평	170,000원	12명	성인	서양화강의실	
	현대미술		8,13(월)~ 10:00~12:00/총18회	하진용	180,000원	10명	성인	서양화강의실	
	한국화	8,9(목)~ 10:00~12:00/총18회	최광옥	180,000원	10명	성인	한국화강의실		
	음치클리닉	여성	8,13(월)~ 19:00~20:30/총18회	이혜숙	150,000원	12명	성인	영상강의실	
		남성	8,8(수)~ 19:00~20:30/총18회	이혜숙	150,000원	12명	성인	영상강의실	
댄스스포츠	초급	8,14(화)~ 19:30~21:30/총18회	이영재	200,000원	16명	성인	무용연습실		
어린이아카데미	미술로 상상하기	유아	8,27(월)~ 16:00~17:30/총15회	김미리	170,000원	8명	6세	어린이미술실	재료비 (20,000) 포함
		유아	8,29(수)~ 16:30~18:30/총15회		200,000원	8명	7세		
	우뇌로 생각하고 좌뇌로 표현하는 똑똑한 미술	초등	8,29(수)~ 14:30~16:30/총15회	김미리	240,000원	8명	초등1~3	어린이미술실	
	동화나라 상상여행 (미술+조소+목공)	유아	8,28(화)~ 14:30~16:00/총15회	강우태	130,000원	12명	4~5세	어린이 미술실기실+ 목공실습실	
			8,28(화)~ 16:30~18:00/총15회		130,000원	12명	6~7세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 음악 First Music Education	영아	8,27(월)~ 11:10~12:00/총15회	김지영	160,000원	5가족	25개월~ 48개월	통합교육실	
	유아의 첫음악 First Music Education		8,27(월)~ 14:30~15:15/총15회		160,000원	8명	4~5세	통합교육실	
	음악의 첫걸음 Kids Music Education	유아	8,27(월)~ 15:20~16:10/총15회		160,000원	8명	6~7세	통합교육실	
뮤지컬 클래스	트레이닝반	초등	8,8(수)~ 14:30~16:30/총18회	예화종합 예술단	230,000원	25명	초등	무용연습실	
	작품 창작반	초등	8,8(수)~ 16:30~19:00/총18회		270,000원	20명	초등	무용연습실	

음악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강좌		개강 및 일시	강사	수강료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장소	비고		
음악아카데미	가야금	기초	A	박현경	220,000원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13(월)~20:00~21:00/총18회	
		중급	A	정은	220,000원	5명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13(월)~17:30~18:30/총18회
		중급	A	김종미	220,000원	5명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14(화)~17:00~18:00/총18회
	입문	8.14(화)~19:00~20:00/총18회									
	해금	기초	A	유명조	220,000원	5명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22(수)~20:00~21:00/총18회
		중급	A	정은주	220,000원	5명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17(금)~17:00~18:00/총18회
		중급	A	박정희	220,000원	5명	5명	초등~성인	통합교육실		
			B								8.16(목)~17:30~18:30/총18회
	입문	8.16(목)~19:00~20:00/총18회									
	바이올린	어린이	기초	박은혁	220,000원	5명	5명	7세이상~초등	음악연습실		
			초급								8.8(수)~17:00~18:00/총18회
		성인	-								8.8(수)~19:00~20:00/총18회
	첼로	어린이	-	권혜진	220,000원	5명	5명	8세이상	음악연습실		
		성인	기초								8.13(월)~18:30~19:30/총18회
			초급								8.13(월)~19:30~20:30/총18회
유소년 합창	어린이	-	박병술 김도연 박예하	무료	30명	초등2학년 이상	음악연습실				



가을특강 프로그램

구분	강좌	일시	강사	수강료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장소	비고
일반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9,7(금)~ 10:00~12:00/총12회	강은주	120,000원	12명	성인	영상강의실	
	캘리그래피	9,6(목)~ 19:00~21:30/총12회	고영미	160,000원	14명	성인	한국화강의실	
	누드크로키	9,7(금)~ 10:30~12:00/총10회	김용호	100,000원	12명	성인	미술실기실	모델료 (50,000) 별도
	디지털사진	9,3(월)~ 10:00~12:00/총12회	안서윤	140,000원	12명	성인	영상강의실	
	한국무용 작품반(살풀이)	9,3(월)~ 10:00~11:30/총12회	차명희	120,000원	12명	성인	무용연습실	
	한국무용 기초반(입춤)	9,3(월)~ 11:30~13:00/총12회	차명희	120,000원	12명	성인	무용연습실	
영아 및 어린이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음악	9,3(월)~ 10:20~11:10/총12회	김지영	120,000원	6가족	~24개월	통합교육실	재료비 (20,000) 포함
	어린이 풍물놀이	9,6(목)~ 16:30~18:00/총12회	이진옥	80,000원	15명	초등1~6	무용연습실	
실버	민화	9,6(목)~ 16:00~18:00/총12회	고영미	무료	12명	만60세 이상	한국화강의실	재료비 별도
	문학	9,7(금)~ 10:00~12:00/총12회	박설희	무료	15명	만60세 이상	통합교육실	

NEW

SPORTS

과학놀이의 체험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여름방학 특별 체험전



과학과 스포츠의

신나는 체험!

창의적인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 공간

〈SPORTS 과학놀이 체험전〉은 SPORTS를 통해 생활 속 과학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신개념 교육놀이 문화로 재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SPORTS 과학의 재발견'을 가족과 함께 즐기고 참여함으로써 교육적인 의미를 더하며, 놀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더욱 다양하고 폭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edu-pla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PORTS는 '과학' 이다

몸으로 부딪혀 'SPORTS'를 즐기고,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익히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운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전시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공을 맞추는 야구, U자형 레일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보드, 하늘을 나는 자전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운동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언스 매직쇼와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있어 놀라운 과학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SPORTS 과학놀이 체험전〉은 달리고, 던지고, 높이 뛰면서 온 가족이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지식의 전달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SPORTS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원리를 이해하며, 상상력을 키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 한층 더 짜릿해진
스포츠와 과학의 세계가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



전시개요

전 시 명	2012 스포츠 과학놀이 체험전
전시기간	2012. 7. 13(금) ~ 9. 2(일) / 52일간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
관람시간	오전 10:00 ~ 오후 6:30(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관람요금	어린이(36개월이상) 12,000원 어른(중학생이상) 10,000원
주 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 관	디오네스트
문 의	080-481-4000

스테디셀러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공연정보

2012년 8, 18(토) ~ 19(일)
공연기간 18(토) 11:00, 14:00, 16:00
19(일) 11:00, 14:00

관람시간 60분

공연장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티켓가격 전석25,000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24개월미만 입장불가)

주관/주최 유리가면

문의 1544-3901

인터넷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인터넷 예매시 40%할인-) 15,000원

[공연소개]

엄마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요.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지요.
엄마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위대하게 보일거예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어린이 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는 책으로만 정해왔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놓고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후토스 마을에 온 백설공주

공연정보

공연기간 2012. 8. 24(금) ~ 26(일)
24(금) 11:00, 14:00
25(토) 11:00, 14:00, 16:00
26(일) 11:00, 14:00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요금 R석 30,000원 S석 5,000원

주관/주최 (주)엠에스뮤지컬컴퍼니

문의 02-582-1089



보는 순간 압도 당한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매직쇼!
비밀의 암호를 풀어
마술사를 구해야 한다
극단챔프 창단21주년 기념 특별공연

가장 좋은 뮤지컬
홍길동
슈퍼 매직쇼

주최 | 극단챔프, 한국마술사협회, 마술램프
 직 연술, 매직 연술 | 채기운 매직 아티스트 | 이선범
 연무 | 임진주 무대미술 | 실사 아트 음악 | 해마 엔터테인먼트
 매직 디자인 | 미국 라스베이거스 엔터테인먼트, 일본 요코 아사이 매직 국제디자인

뮤지컬 홍길동 슈퍼 매직쇼

공연정보

일	시	2012. 7. 15(토) 14:00 / 16:00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티	켓	가	격	전석 20,000원
주	최	극단챔프, 한국마술사협회, 마술램프		
주	관	예매처 인터파크 1544-1155		
문	의	080-481-4000		

[공연소개]

평화롭기 그지없는 한 마을 홍길동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무료하기만 하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김 노인이 등장하여 홍길동에게 세상의 위기가 닥쳤다고 알려준다.

영문을 몰라하는 길동에게 김 노인은 지금 마술사가 나쁜 놈들에게 잡혀 더 이상은 마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술이 없으면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질 수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세상은 힘들어질 것이고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술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 마법의 성에 갇힌 마술사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술사가 갇힌 성의 비밀의 감옥을 열어야 한다. 그 감옥은 4개의 암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알아내야만 마술사를 구해낼 수 있다.

단, 수학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이 비밀번호는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맞추어야만 한다.

4가지의 문제를 맞추어 4개의 열쇠를 열어야만 마술사가 다시 세상에 나와 마술을 보여줌으로 다시 세상은 상상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이에 길동은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 4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 마술사를 구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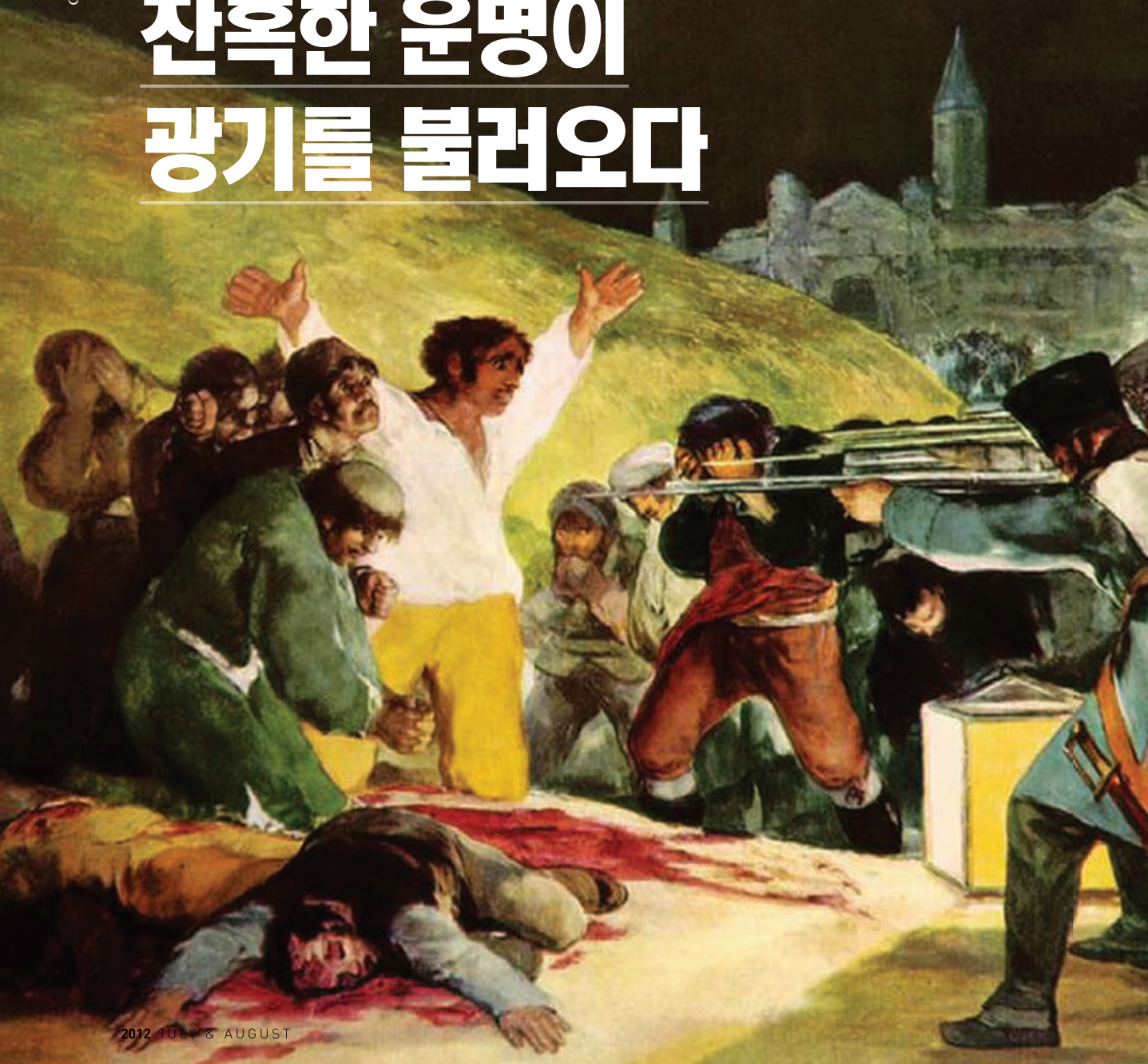
사칙연산과 수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고 관객들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길동은 결국 마술사를 구하게 된다.

마술사는 나쁜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마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관객들을 위해 멋진 마술공연을 선보인다.

그림 속 신화이야기Ⅲ

고야의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잔혹한 운명이 광기를 불러오다





거신 사투르누스는 고대 로마 신화 속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존속살인의 주인공이다. 그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낫으로 죽이고, 자식들을 산채로 집어 삼켜버린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태초에 카오스, 즉 혼돈 속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태어났다.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여러 거인을 낳았는데, 가장 나중에 태어난 이가 사투르누스이다. 사투르누스는 우라노스에게 원한을 품은 어머니 가이아의 명을 받아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 죽이고, 신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이때 바다에 버려진 우라노스의 성기가 파도와 만나 만들어낸 거품 속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니, 아름다움이란 실상 끔찍한 핏덩어리에서 피어난 꽃인 셈이다. 아버지 우라노스는 죽어가며 사투르누스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긴다. “너 역시 네 자식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 예언에 두려움을 품은 사투르누스는, 여동생이자 아내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포세이돈과 하테스를 비롯하여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가 태어나자 이들을 차레로 집어 삼켜버린다.

스페인 출신의 낭만주의 화가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1746~1828)가 그린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바로 이 일화를 다루고 있다. 칠후 같

은 어둠 속에서 흰 눈자위를 부릅뜬 알몸의 거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작은 몸집의 아이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머리 부분과 상반신은 이미 뜯어 먹히고, 남은 육신은 피범벅이 된 채 뻗뻗하게 굳어 있다. 가냘픈 아이의 몸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쥔 거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들고 있다. 핏줄이 선 흰 눈동자는 사투르누스가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자식을 삼키며 제정신인 이가 어디 있겠는가? 고야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사투르누스의 상황을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묘사 방식은 신화 속의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화에 따르면 사투르누스는 자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어삼킬 뿐이다. 삼킨다는 것은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나중에 사투르누스가 제우스의 지락으로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야의 그림처럼 사투르누스가 자식을 물어뜯어 처참하게 죽였을 리는 없다.

고야에 앞서 바로크 화가인 루벤스 역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의 모습을 고야와 유사하게 물어뜯는 장면으로 그려냈다. 어두운 하늘에는 토성과 그 위성이 떠있고 불길한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가운데, 커다란 낫을 손에 든 백발의 사투르누스가 어린아이를 입으로 물어뜯고 있다. 노인치고는 건장한 체격이지만 늘어진 피부는 거인이 살아온 애욕의 세월을 대변한다. 그가 솜털이 난 어린아이의 여린 가슴을 거칠게 물어뜯자, 아이는 고통에 몸을 뒤로 젖히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무섭고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장면이지만, 광기로 가득한 고야의 작품과 비교하면 루벤스의 것은 차라리 아름답다. 바로크 특유의 우아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는 사투르누스에게 위엄 있는 노신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 있는 토성을 지칭하는 새턴(Saturn)이라는 이



고야, 〈제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1820-24, 프라도미술관

름은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홍의 별인 토성이 사신처럼 무자비한 이미지의 사투르누스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손에 든 커다란 낫은 농경신인 사투르누스의 상징물이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Kronos)라고 불리는 데, 이것이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chronos)'와 발음이 동일하여 점차 시간의 의인상으로 해석되었다. 즉, 시



루벤스,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1635-38, 프라도미술관

간은 언젠가 낮으로 베어버리듯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존재하며, 시간은 모든 젊음과 아름다움을 거두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사투르누스의 생명 역시 언젠가는 종결되어야 하는 것. 사투르누스의 모든 운명은 다가올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여기서 그를 운명의 종착역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아들 제우스이다. 사투르누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였듯이, 그 자신은 아들인 제우스에 의해 죽음에 이른다. 제우스

는 사투르누스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레아가 그를 대신해 돌을 강보에 싸서 사투르누스에게 건넨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투르누스의 눈을 피해 무사히 성장한 제우스는 메티스 여신의 충고에 따라 사투르누스의 음식에 몰래 약을 타서 형제자매를 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살아난 제우스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 사투르누스와 티탄족에 맞서 10년간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사투르누스로부터 세계의 지배권을 빼앗고 그를 지옥에 가두어 버린다. 로마 신화와 달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 이야기의 결말이 다소 다르다. 제우스에게 지배권을 빼앗긴 사투르누스가 이탈리아로 도망쳐 그곳에서 치세를 누리며 황금시대를 이루었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결론이 무엇이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 아이를 삼켜야 하는 사투르누스의 잔인한 운명이다.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 시간의 속성이고, 사투르누스 자신이 이러한 시간의 의인화로서 자식을 삼켜버리는 것이 운명이라 하더라도, 고야의 그림 속에 묘사된 광기에 사로잡힌 사투르누스의 모습은 두려움과 함께 동정심을 자아낸다. 거부할 수 없는 숙명에 절망하여 정신을 놓아 버린 듯 광기로 무장한 거신의 모습은, 그래서 차라리 인간적인지도 모른다. 또한,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통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사투르누스의 모습은, 40대에 청력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세월을 살다 간 화가 고야의 삶을 연상시킨다. 고야는 살아생전 지옥의 풍경과 전쟁의 잔학행위를 묘사하는데 몰두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기를 살다간 고야는 세상에 대한 충동과 분노, 무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끔찍한 광경으로 형상화하여 캔버스 한가득 토해낸 것이다. 사투르누스 광기의 몸부림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더 잔혹한 현실을 향한 고야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담은 소리 없는 외침이었는지도 모른다. 🌈

강은주

글쓴이 강은주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미술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와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있다.

Principum

amicitias!

CULTURE TREND
영국, 그 중독의 매력에 빠져들다



Part 2 - '변화' 그리고 '시선의 자유'에 빠진다.

연극, 영화보다 재미 있는 입곱까지 매력

'변화'의 가능성을 즐긴다

지난 회에 이어 영상의 시대 속에서도 그 집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연극만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영화가 죽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연극의 중독적인 매력, 그 세 번째 요소는 '변화'의 가능성이다. 영화는 한 번 만들어지면 끝이다. 하루를 상영하든 십 년, 백 년을 상영하든 똑같다. 그렇다면 연극은 어떨까? 대개의 연극이나 뮤지컬 작품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에 걸쳐 공연된다. 한 작품을 같은 배우들이 오랜 시간 반복해서 공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화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런데 왜 연극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할까?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변화, 나쁜 변화 그것이다. 좋은 변화를 '사건'이라 하고, 나쁜 변화를 '사고'라 한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사건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 건 내 인생의 사고였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다. '사고'는 일어나며 안 되는 일이지만, 일이 터지는 순간에 관객들은 의외로 재미있어 한다. 패션쇼에서 모델이 런어웨이를 멋지게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다리를 접 질러서 넘어지면 재미있다. 백댄서들이 춤을 잘 추는 것도 좋지만, 옷이 훌렁 벗겨지는 것도 재미있다. '사고'는 정작 당하는 배우나 가수, 제작자는 죽을 맛이지만, 관객들은 즐거워하는 일종의 약취미에 가깝다. 물론 영화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사고는 촬영 현장에서나 일어나고 정리될 뿐, 스크린 상의 완성된 영화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연극은 매번 공연 때마다 무대나 객석에서의 사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공연을 보는 이나 하는 이로 하여금 묘한 긴장과 흥미를 자아낸다.

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사건'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본 연습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가령 일반적인 TV 드라마 같은 경우 대본이 언제 배우의 손에 들어갈까? 작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촬영이 임박해서이다. 늘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TV 매체의 속성상, '쪽 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막써 낸 대본을 팩스로 촬영 현장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가 대사를 충분히 연습해 완성도 있는 캐릭터로 표현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비해 영화는 시나리오가 언제 나올까? 반년 이상, 최소한 수개월 전에 캐스팅된 배우의 손에 대본이 주어진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그 여유만큼 연습을 통해 등장인물의 마음, 관계,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생 한 번도 아버지께 대들지 못했던 아들이 억압적인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외치는 '아버지'라는 대사는 고작 세 마디의 말이다. 이것을 몇 가지 형식으로 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음절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또 어느 정도 길이로, 어떤 감정을 실어서 등등에 따라 다르게 할 경우 실제 수천 수만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하물며 인생 가운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극적인 순간의 대사들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럼 연극 대본이 언제 나올까? 그리스 비극은 2천 5백여 년 전, 셰익스피어는 4백여 년 전, 입센과 체호프는 1백여 년 전에 나왔다. 이걸 얼마나 연습할까? 통상 2~3개월, 동유럽 극단은 6개월, 러시아 레퍼토리 시스템에서는 1년 동안 연습한다. 이런 절대적인 연습 끝에 바로 '사건'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랜 연습 가운데, 한 배우가 극 중 등장인물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추적해 들어가, 어느덧 그 인물의 고통과 슬픔, 기쁨과 쾌락을 깊이 공감하게 된다. 이윽고 그러던 어느 날 실제 공연 중에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등장인물의 심정에 깊이 동화되어, 어느 순간에 연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인물이 되어서 '아버지!'를 외칠 때가 바로 '사건'이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물이 되어버리는 순간으로서 '사건'은 쪽 대본의 TV나, 제한된 스케줄에 따라 촬영해야 하는 영화 매체에서는 결코 경험하기 힘든 무대 예술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오늘도 대학로 한 구석의 작은 소극장 무대 위에 무명의 어떤 배우는 이런 '사건'의 순간을 체현하고 있을 것이다. 연극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의 순간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선의 자유를 즐긴다

연극의 중독적 매력, 그 네 번째는 관객 시선의 자유로운 능동성을 즐기는 데 있다. 영화의 시선은 관객의 것이 아닌 감독이나 PD의 것이다. 다시 말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 줄 뿐, 관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유로 능력 있는 감독이나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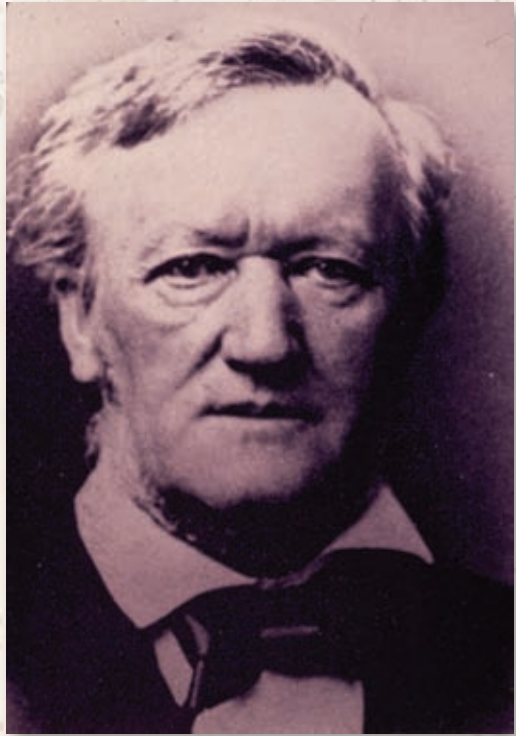
의 작품은 관객의 보고 싶은 욕망을 앞서 포착해 보여줌으로써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감독은 관객의 시선보다 뒤쳐져 따라감으로써 짜증이나 불쾌감을 자아낸다. 예를 들어 쇼 프로그램에서 가수를 보여줘야 할 때 백댄서를, 또 댄서를 비춰야 할 때 엉뚱하게 방청객을 보여주는 식이다. 이에 비해 관객의 시선 앞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연극에서 시선의 주도권은 오롯이 관객의 몫으로 넘어간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 주인공 리어가 중요한 대사를 하는 순간에서도, 굳이 한구석에 창을 들고 서 있는 병사1을 노려보고 있는 관객의 시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연극이다. 이런 이유로 연극에서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역이다. 만약 병사1이 대사도 없고 작은 역이라 무성의하게 짝 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고 해 보자. 그 순간 <리어 왕>은 무너지고 만다. 왜냐하면, 절대 군주로서 지엄한 리어의 궁전에 나태하게 짝 다리를 짚는 병사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연출가 스타니스랍스키는 '작은 역이란 없다, 작은 인간이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무대 위의 모든 역은 나름의 중요함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속 좁은 작은 인간으로 인해 위대한 연극이 졸작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연극에서도 관객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부분 조명 등의 장치를 사용한다. 하지만 작은 소극장에서 조명 장치의 빛은 반사광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무대와 객석을 어렵듯이 비춰 보인다. 짓궂은 관객은 심지어 조명이 비추는 곳의 배우보다 어둠 속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배우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쳐다보고 있기도 하다.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선의 주도권뿐만이 아니다. 진행자 생각에 영화가 관객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량이 많을까 연극이 많을까? 예를 들어 보자. 삼각관계의 세 남녀가 서로 다투는 장면에서 화를 참지 못한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끼얹었다. 카메라는 물을 뒤집어쓴 남자의 모습을 잡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시청자가 극 중 남자가 아니라 물을 끼얹은 후 의기양양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다. 한 마디로 카메라의 프레임 밖의 모든 정보는 차단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연극은 모든 것이 관객의 시선 앞에 노출되어 있다. 무대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끼얹는 순간, 관객은 여자를 봤다가 남자를 봤다가, 또 다른 여자의 반응을 봤다가 전체를 봤다가 두 사람을 봤다가 등등의 방식으로 무대 위 배우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정보를 즉석에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극을 재미있게 보는 방식은 TV드라마 보듯이 무대에서 말하는 배우들만 쫓아다니며 보는 것이다. 반대로 제대로 연극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PD나 감독이 되어서 말하는 배우와 상대 배우의 반응, 또 주위 분위기 등등 수많은 볼거리를 스스로 찾아 즐긴다. 한 마디로 연극 보는 즐거움, 플라먹는 재미가 있다.

To be continued. 🌈

박준용 (연극평론가, 한양대 강사, adzero@empal.com)

Richard Wagner



1924년, 야심만만한 청년장교 히틀러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 왕국 바이로이트를 방문하였다. 그는 흠모해 마지않는 위대한 음악가의 아들 지그프리트를 만나 독일 민족의 우수성과 이를 음악적으로 고양시킨 바그너를 지극한 헌사로 찬양하였다. “우리가 이곳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정신으로 만든 칼날은 날카롭게 달구어졌습니다.”

그 말은 불행히도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실현되었다. 해마다 바이로이트 음악축제에 극빈 자격으로 초대받았던 청년장교 아돌프 히틀러는 ‘바그너의 정신으

로 달구어진’ 칼날을 들고 제2차 세계대전을 감행했으며, 그 와중에 대단히 야만적인 인종 청소 작업, 곧 유대인을 세계인구 분포표에서 완전히 멸살하려는 야욕을 감행하였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게르만족의 위대성을 정치적으로 실현하여 유럽은 물론 세계 전체를 호령하는 절대국가를 지향한 집단이었다.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패권적 야욕을 제국주의 단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강패적이고 호전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출몰을 도모할 수 없을 때 나타난 극단적인 민족우

선주의라고 보았다.

히틀러는 단순한 편집광적 인물이 아니라 유럽의 정신사에 그 나름의 지적 체계를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주로 신비 신앙, 최면술, 점성술, 인종론 등 신비주의와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서적을 탐독하면서 독일 민족 패권주의를 도출해 냈으며,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이상으로 바그너를 선택했다.

왜 하필 바그너였을까. 술한 음악가와 선구적인 예술가들 대신 히틀러는 왜 바그너를 선택했던 것일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그너라는 기이한 인물, 그리고 그의 작품 안에 숨겨져 있다.

19세기 초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국민국가의 발전을 시작하여 봉건제를 극복하고 국내시장 개발과 대외 진출에 왕성하게 나섰지만, 독일은 300여 개의 영방(領邦)으로 분열된 채 중심한 정치적 쟁투와 경제적 후진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수 세기 동안 중세적 고립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19세기에 발흥한 민족주의는, 프랑스에 맞서 독일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공동체를 희망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 같은 열망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이다. 그는 1860년대에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배제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하려는 '소독일주의 노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철혈정책으로 유명한 그는 드디어 1870년에 보불전쟁을 일으켜 나폴레옹에게 당한 독일민족의 설움을 씻은 다음, 프랑스 권력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에서 당당히 독일제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새로 탄생한 독일제국에는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배제되었으며 북독일 연방을 주축으로 남독일의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등을 결속시켰다. 그가 이룩한 통일 독일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조약에 따라 해체되는데, 이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다.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고 종결된 비스마르크의 독일, 이 시대를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민족주의'이다.

독일의 주요 지역은 대개 중부 유럽에 펼쳐져 있는데도 독일의 문화사에는 대체로 신비스럽고 음울한 북유럽적인 분위기가 잔뜩 배어 있다. 확실히 독일 문화에는 어둠의 분위기가 칙칙하게 묻어 있다. 이 어둠의 문화가 자아내는 가장 큰 특징은 비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념성, 낭만주의, 초월의식, 신비주의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복구적인 음울함을 대변하는 독일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은 독일 문학의 거장들이 세기별로 웅변해 주고 있다. 그들은 주로 북유럽 설화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 문화의 지배적인 정서를 구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뢰데킨의 『히페리온』, 노발리스의 『푸른 꽃』,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철학적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이 작품들은 각각 '희랍 신화적인 상징'과 '기독교·반기독교 상징'을 대변했는데, 바그너가 필생을 걸고 작곡한 <니벨룽겐의 반지>가 내포하고 있는 '신비주의적 상징'과 함께 독일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기말의 철학적 시인 니체는 반기독교적인 독일 고유의 신비주의를 이상적인 신으로 상정한 '차라투스트라'에 투영시켰다. 니체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를 차용해, 궁극적으로 독일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반기독교적 사상을 고양시켰다.

바그너의 경악스런 대작들은 이런 맥락에 따라 때,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 바그너의 인생은 파괴적이고 야심



바그너 악극의 해석에 일획을 그은 게오르그 솔티의 명반 니벨룽겐의 반지 중 발퀴레



바그너 악극의 무대를 연상시키는 히틀러의 정치 행사. 한복판에 히틀러가 보인다.



바그너가 직접 설계한 바이로이트의 축제극장

찬 행적으로 채워져 있다. 바그너는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동료나 애인들에게 기꺼이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체로 그의 야심대로 실현되었다. 한결같이 바그너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한스 폰 뷔로는 자기 부인 코지마를 바그너에게 빼앗기는 일까지 겪었다. 요컨대 바그너는 대단히 공격적인 기질로 술한 비판자들을 양산했지만, 이에 반해 막강한 열렬한 추종자 군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라이프치히에서 경찰 서기의 아들로 태어난 바그너는 출생 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고 아주 어릴 때 화가, 배우, 작가로 활동하던 루트비히 가이어를 의부로 맞았다. 다혈질의 바그너는 유럽 문명의 모든 역사와 지식을 송두리째 빨아들일 것 같은 '질풍노도'의 10대를 보낸 후 20대에 벌써 작곡가 겸 지휘자로 뷔르츠부르크, 쾰히히스베르크, 파리 등지에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낭비벽과 원초적인 대결의식 때문에 언제나 경제적 고통과 시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바그너는 〈리엔치〉,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등을 속속 만들어냈다. 바그너는 기존의 이탈리아식 낭만파 오페라가 독일의 예술성, 곧 음악성과 연극성이 결합된 창대한 새로운 것을 방해할 뿐이며 이 두 가지 요소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음악극'(Musik-



바그너의 후원자였던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가 기울어져 가는 바이에른 왕국의 영화를 꿈꾸며 세운 노이슈반슈타인 성

drama)을 새로 고안하였다. 이는 오랜 창작 기간과 훌륭한 공연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이 필요한 실험이었다.

그때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가 있었다. 국왕은 바그너처럼 12살 때부터 독일의 전설에 심취하였고 바그너의 새로운 악극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바그너의 계획을 듣자마자 지체없이 그를 뮌헨으로 초빙하였다. 루트비히 2세는 바그너에게 풍요롭고 안락한 거처와 막대한 연봉을 제공하였으며, 장차 뮌헨 북쪽의 도시 바이로이트에 전적으로 바그너의 음악만을 올릴 수 있는 전문 극장을 지어준다.

중요한 것은 바그너가 '악극'이라는 형식과 특징적인 기교를 통해 독일 민족주의와 신비주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시와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바그너는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고전주의 작품까지 섭렵하여 '문학의 음악화'를 통한 독일 정신의 구현에 필생의 힘을 쏟았다. 이러한 작업의 백미가 바로 필생의 대작 <니벨룽겐의 반지>이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4일에 걸쳐 상연되는 4부작으로, 오페라와 악극을 통틀어 가장 긴 작품이다. 바그너는 북유럽의 신화와 중세기의 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하였다.

바그너는 자신이 이룩한 악극 양식 속에 수 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독일 영웅 무훈담과 북유럽 전설의 신비성을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세기말의 독일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운을 고양시켰다. 독일 문화사를 지배해 온 음울하고 원천적인 신비성은 바그너에 의해 총합 되었으며, 이는 곧 독일 민족이 경험한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음악적으로 체현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의 새로운 오욕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과연 우연의 소산인가, 이 점이 문제다. 소설가 토마스 만은 그와 같은 악종 인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우연'이지만, 근대의 독일이 '현대'에 뒤늦게 도착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1차 대전 패전에 따른 막대한 전쟁 배상금 문제와 구겨져 버린 자존심, 의회 정치의 무능력, 경제적 파탄, 청년 실업 사태, 사회통합 기능의 마비 등이 겹치면서 1920년대의 독일은 '강한 힘'을 동경하였고, 그 희뿌연 언덕 위로 히틀러가 등장했다고 본다.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 행사에 늘 바그너의 장대한 곡들을 틀었다. 히틀러가 권력이 잡기 훨씬 전에 바그너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그가 도드라지게 전체주의를 표방한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그의 음악에 담겨 있는 고도의 독일 민족주의는 히틀러라는 악종 인간의 인류사적 범죄에 적지 않은 '공범'이 되었다. 🌈



정윤수 _ 음악칼럼리스트

정윤수 (음악칼럼니스트) 저서로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낙원 - 현대 도시문화와 삶에 관한 성찰> 등이 있다.



원곡동 대안 문화공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한국 속의 작은 아시아, 예술을 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40여 개국 5만여 명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모여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안 문화공간을 꿈꾸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그곳이다.



문화예술인들, 이주민 노동자를 만나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을까. 화려함과 독특함으로 포장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서 조금은 특별한 곳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리트머스는 너무나 평범했다. 다가구주택 사이의 한 건물, 지하실 갤러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린 작은 표지판이 없었다면 리트머스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옆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도 그랬다.

그래, 다행이다. 국경 없는 마을과 너무나 잘 융화된 모습이다.

리트머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공존하는 원곡동에서 예술을 매개체로 이주민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삶과 예술’을 결합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리트머스 백용성 대표의 설명이다. “2007년 안산 인근 지역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던 몇몇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 리트머스입니다. 당시 국경 없는 마을에는 예술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죠. 사람들은 많았지만 삭막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여기에 예술이 결합되면 작은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모인 거였죠.”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트머스는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변화를 몸으로 겪어 왔다. 다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각종 전시와 공연, 마을축제, 교육,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끌며 광범한 한국 생활에 힘들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예술적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국적·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인맥이 만들어졌다. 함께 활동하는 작가들도 크게 늘었다. 회원만 60여 명, 국내의 유명 작가들의 참여 비율도 점점 늘고 행사가 있을 때면 30~40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한다. 특히 5~6명의 작가는 리트머스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국경 없는 마을을 찾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다

리트머스는 원곡동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구성원들만 봐도 예술가를 중심으로 비평가, 전시기획자, 시민운동

가, 이주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추구하는 예술도 특정 장르에 국한되거나 틀에 갇히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고 새로움을 추고 하려 한다.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 리트머스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리트머스는 초창기부터 이주민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예술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주민들과 단편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화가들은 그림을 함께 그리며 소통하기도 했고, 전시기획자들은 주민들과 공동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리트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리트머스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수정한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리트머스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예술활동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 대표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나라별로 뭉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커뮤니티 베이스 속으로 직접 찾아가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리트머스의 활동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리트머스 자체 갤러리가 있지만, 갤러리에 갇힌 예술보다는 이주민 노동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예술, 실험적이고 상상적인 예술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만들어진 클럽이나 동아리들과 유기적으로 친분을 쌓고 각종 프로젝트에서 이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도 리트머스 프로젝트의 한 영역이다. 더불어 페스티벌 등을 통해 원곡동이라는 다문화적이고 다국적인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원곡동, 문화예술로 소통을 꿈꾼다

리트머스의 프로그램은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처럼 늘 변화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추가되고 사라지는 프로젝트들도 많다.

하반기에 준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대략 6~7가지. 먼저 6~9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초에 전시되는 '신진작가 플랫폼'이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향하는 신진작가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의 주제는 'FLUX-US '12'이다.

'국제레지던시'는 7~8월 준비를 거쳐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아시아권 작가와 국내작가 8~10명이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척 흥미롭다. 작가들이 원곡동에서 2~3개월 정도 직접 거주하면서 작가의 예술적 표현 방식에 따라 실험적이고 상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다.

8월 중순에는 '도시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아트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예술이 도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작가와 비평가들의 생각·고민을 들여볼 수 있다.

9월 9일은 국경 없는 마을의 마을 축제로 자리 잡은 '올라뽕다이'가 열린다. 국경 없는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물론, 예술가들, 시민 등이 어우러져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리트머스와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이 다시 전시회를 여는 '신진작가 A/S전시회', 리트머스 회원들이 이주민 노동자들을 찾아가 다양한 얘기를 듣는 생활형 프로젝트인 '미미의 식탁',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진행된다. 🌈

이춘우(프리랜서)



학교! 예술교육을 묻다

오세호(강서고등학교 교사)

남승원(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사)

양재천(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감)



교육기관의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대체교육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공연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예술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일선 교사 3인에게 들어보았다.

공연학생단체관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학생들 단체관람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오세호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정서적인 발전을 위해 시작한 면도 있지만 가장 소박한 계기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 알고 눈을 뜨게 되는데 문화예술 공연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학 작품을 배우며 느끼는 경험도 좋은데 그에 못지않게 공연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도 감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승원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IT분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24시간 학교 내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IT/컴퓨터 관련 교과가 많다 보니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던 중 안산예술의전당 개관과 더불어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학기별로 꾸준히 단체관람을 학교의 주요행사로 추진해 오게 되었습니다.

임재천 교과서나 시청각 매체가 주는 한계를 벗어나 보다 오감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감성의 계발이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들은 하면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개개인의 몫이나 취향으로만 보기에 학교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장르에 가리지 않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단체관람을 추진하시면서 겪으시는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오세호 일단은 작품을 선정하는 면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공연 관람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고려해야 하는 것, 관람 후 유익함이나 감동이 남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물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음먹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청을 받고 예약을 하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과정의 어려움, 예약 후 번심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등이 힘들었습니다.

보승원 일반적으로 좋은 공연들은 주로 주말과 휴일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안산지역 학생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기에 귀가 일인 주말에는 공연관람이 어렵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에 단체관람이 가능한 우리 학교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재천 학교 교육일정과 공연프로그램의 시기 문제 즉 정기고사, 학력평가 1주일 전에는 좋은 공연 일지라도 단체관람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권과 단체 관람료의 차이가 없어 단체관람을 적극 권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단체관람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변화의 사례가 있으셨나요?

오세호 2000년 초반까지 안산은 문화 공연 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학생들과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보곤 했습니다. 공연관람은 함께 한 사람들의 거리를 좁혀 주었고 공연 후 생활에서 공통 주제와 관심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학급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이 생기며 학교 전체로 문화생활의 동료들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수업 시간이나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삶에 대해,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학생 중 일부가 좋은 공연을 저에게 소개해 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학이나 진로를 문화 예술 공연계로 잡은 학생들도 나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의 문화계 주역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보승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 배우, 음악가들의 공연을 듣고 흠뻑 빠져있는 모습들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적 감성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며,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문화예술체험 참여를 통해 해소시켜주어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공연관람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만큼 이미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재천 문화인의 기본 소양인 공연장 예의는 물론 작품에 접근하는 안목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는 관람 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소감문 발표회 및 토론 수업으로 연장하는 실용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지적 정서가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오세호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즉 공연관람 신청 시 가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동반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주어 공연관람이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 교실 같은 것들을 열어 사회적 공헌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제동행 관람 동아리나 학생 문화예술비평회 등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들의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순회공연이나 예술 강연들을 기획하여 미래의 소중한 문화 예술계의 잠재 고객들을 교육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승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부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토요일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관련 여러 기관에서 신규 교육·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로데오 광장을 지나며 “이 좋은 공간을 상시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하고 항상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전국 최고의 녹지공간·공원 도시를 떠나 이제 최고의 문화도시, 문화체험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오 광장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 중심의 공연·전시·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 안산만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진행에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처럼 월별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테마별 열린 체험의 축제를 열면 지역문화 발전, 청소년 정서 문화 발전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장을 꾸미고 진행하는 거죠!! 학생이 중심이 되어 북 치고 장구 치고... 생각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양재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 해설이 함께하는 전시, 공연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트콘서트, 클래식 명화의 만남, 해설이 있는 발레, 교과서에 소개되는 우수회곡, 우수작가의 연극, ‘한국 무지컬의 자존심’ 같은 해설자(사회자)가 길 안내를 하는 형식의 콘서트가 좋은 방향이라 추천합니다. 🌈



아마추어 실버 아코디언 연주단 '은빛소리'

추억을 연주하는 황혼 연가!

나른한 오후 2시, 구성진 가락의 '봄날은 간다' 멜로디가 벽을 타고 흐른다.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어보니 15여 명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는 건반을 왼손으로는 바람통을 접었다 폈다 하며 아코디언 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는지 절로 흥이 났다.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것. 아마추어지만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아코디언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안산문화원 소속 '은빛소리'를 만나왔다.

실버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시작

'은빛소리'는 처음부터 연주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안산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에서 아코디언을 처음 접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모임이었다. 그 당

시에는 무거운 아코디언을 한쪽 어깨에 메고 기초 교육만 매일같이 연습했지만, 지금은 뛰어난 연주 실력을 자랑할 정도라고 한다. 초창기 멤버인 송은오 회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선생님의 열정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면서 "악보도 볼 줄 몰랐던 새내

기들이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 하나쯤은 멋들어지게 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코디언을 시작한 이유도 다양했다.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고 나니 외로워서 시작한 회원도 있고 신 나게 한 곡 연주하면 인생의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족 행사 때 연주하기 위해 등 연유도 많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실버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정이 그들을 이끌었다고 한다. 최고령 김해진(78) 씨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늦게 아코디언을 접해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지금은 서너 곡 정도 연주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면서 “특히, 아코디언은 양손을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회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다름 아닌 회원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오형기 아코디언 강사다. 오 강사는 “수많은 곳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은빛소리’는 한 곡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연주단”이라며 “처음에는 걸음마도 못하던 회원들이 단거리 선수 정도로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지역 사회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 다니며 봉사활동

‘은빛소리’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 지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자처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힘든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흘러간 옛 노래를 한 곡 들려주면 손을 꼭 잡고 “힘이 되어 고맙다”는 환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힘이 들어도 그늘진 얼굴의 환자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발걸음 옮기게 된다는 ‘은빛소리’ 회원들.

그래서일까. 아코디언 연주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양로원, 고아원, 노인요양원 위문공연, 노인잔치 등 매년 20여 회를 순회하는 건 기본이고 안산시 ‘토요행복콘서트’, ‘KBS 언제나 청춘’, ‘복지 TV시청자 뷰파인더’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정기 연주회에서도 ‘은빛소리’는 단연 돋보였다. 일 년에 두 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성호문화제에 참가해 관중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다.

한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회원들은 지도 교사로 활동해 배움을 나누주고 있다. 송 회장은 “동산교회와 거성교회에서 아코디언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맞보고 있다.”면서 “덕분에 사회에 무언가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과 함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취미로 시작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진 아코디언의 향연. 끊임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은빛소리’가 더욱 빛나는 까닭이다. 🌈

이민경(프리랜서)



안산아트 뉴스

ANSAN ART NEWS

야외공연장 활성화사업 <예술! 밖으로 나오다> 개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해에 이어 <2012 예술! 밖으로 나오다> 사업을 개시하였다.

<예술! 밖으로 나오다> 사업은 안산지역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직장인밴드, 청소년 예술동아리들에게 공연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내 야외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음향 및 조명 장비와 더불어 기술 전문인력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공연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하여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지역내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리고 <예술! 밖으로 나오다> 사업에 참가한 아마추어 예술단체 중 우수팀을 선발하여 8월에 개최하는 <2012 여름미모페스티벌> 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여 더 많은 안산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좀 더 큰 무대에서 공연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 초청 단체에게는 소정의 공연료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부분 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2년 새로 적용되는 법규에 맞춰 홈페이지를 부분 리뉴얼 하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콘텐츠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개선하고 대관의 전산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원활한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웹표준화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 수장대 제작, 설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전시관 수장고내에 수장대를 제작, 설치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장고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은 소장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고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작품의 균열 등 작품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수장고에는 회화작품 보관을 위한 선반식회화류 수장대 6대와 조각작품 보관을 위한 3단식 중량물 수장대 2대 등 모두 8대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수장고 항온항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장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안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4월 25일에 양기관의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는 관내 공무원들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한 공연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홍보 능력 강화를 통해 관객개발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양기관은 우선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공연사업 및 예술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을 맺음으로서 양기관간 다양한 협력의 교류에 따른 공무원들에 예술접근성 제고가 기대된다.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안산시립국악단의 문화나눔,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은 올해 3월 16일 삼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를 무대에 올렸다.

2001년 성포초등학교에서 처음 열려 14년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안산시립국악단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생활 속의 작은음악회이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는 그동안 안산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부분 방문했을 정도로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대환영을 받는 안산시립국악단의 인기 음악회 중 하나이다. 실내악 규모로 진행되는 음악회에서는 국악기 감상은 물론 우리 악기와 장단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반주에 맞춰 친숙한 노래들을 함께 불러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안산시립국악단 임상규 지휘자는 “찾아가는 교실음악회가 안산 전역으로 확대, 더 많은 안산시민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욱더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참가는 안산시청 담당부서에서 년초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실음악회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 (031)481-2795 안산시청 문화관광과

7월 예정교실음악회

- 7/3 안산서초등학교
- 7/4 안산초등학교
- 7/10 부곡초등학교
- 7/12 덕인초등학교
- 7/13 각골초등학교
- 7/17,18 매화초등학교
- 7/19 별망초등학교
- 7/20 슬기초등학교
- 7/23 호원초등학교
- 7/24 중앙초등학교
- 7/25 침촌초등학교



대관신청안내

▶ 대관문의/신청

■ 공연동 및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27 FAX 031-481-4021

■ 전시동 내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95 FAX 031-481-4094

■ 공연장

시설명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야외공연장
규모	1,368석(아동극1,060석)	686석	142석(가변식)	1,000명 수용

■ 전시관

시설명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규모	368.13㎡	361.85㎡	361.78㎡	360㎡

■ 국제회의장 : 181석(회의석 112석 방청석 69석)



아름다운 만남

나누미

2012년 6월 현재

총 165,453,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복회원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박수연,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중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케이션스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셋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바리스커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따따라', 양미경, 주부연교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PMC프로덕션, 김명산, 안산시간축사회, 안산예당아트샵,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농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캡프, 켄마트리, 천사부메랑, 사과와 당근 갤러리

■ 참여방법

문의 : 031-481-4046(문화나누미 담당자)

전당홈페이지 : www.ansanart.com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161-01-086553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나누미

■ 회원구분 및 예우

구분	기부금액	회원예우
나눔회원 (개인)	1만원 이상	1. 기부금영수증발급 2. 무료공연 우선초청
보람회원 (개인/단체)	10만원 이상	3. 기획공연 프로그램복증정
행복회원 (개인/단체)	100만원 이상	4. 전당소식지 '하늘다리' 우송 5. 정당기념품 증정(보람, 행복회원)

- 회원자격은 1년간 유지됩니다.

- 기부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 예) 직장동료, 모교후배 등